

이삭,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핵심 구절: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25

선택한 성구:

창세기 26:16-33

핵심 구절은 기근의 시기에 이삭의 체류가 절정에 달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의 꾸준한 흐름으로 식량과 물이 거의 보장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2:10 참조) 그러나 이삭은 여호와로부터 약속의 땅에 남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물을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삭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교훈의 요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기근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이작은 아버지가 그 땅에 파놓은 우물을 떠올리며 그 우물을 찾아 그 소중한 물을 다시 흐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6:17,18; 21:25-31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존경과 명예는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과거의 명칭에 따라 짓고자 하는 열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거리에서서 바라보고, 옛길을 물으며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16)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옛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는 지상에서 가장 깊은 물의 우물인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은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으로 물이 솟아나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지역 목동들()이 "그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의 하인들과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분쟁"이라는 뜻의 *에섹*이라고 적절하게 부르며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다음

우물을 팠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랄의 목동들은 그들과 다투었고,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반대"라는 뜻의 *싯나라고* 부르며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끈기와 믿음은 이삭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고, 그는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창세기 26:19-21

새로 수리한 세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나왔고 우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22절) 이 기쁨은 시편 기자가 "그가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사 나를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18:19) 따라서 이삭은 영감을 받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대의 부정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인 성경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릅니다.